

# China Focus

## 상호 관세에 대한 중국 영향

China 백은비\_02)368-6157\_ebbaek@eugenefn.com

-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시장 예상을 상회. 중국을 비롯해 EU, 인도, 베트남,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에 20% 이상의 관세를 결정, 그 중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관세는 각각 34%, 46%에 달함.
- 중국의 경우 앞서 20%의 관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관세가 발효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54%에 육박. 동남아에 대한 관세가 인상된 점도 그간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을 늘린 중국에게 있어 부담.
-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바가 '21년 이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전보다는 앞선 조치처럼 제한적인 관세 인상 또는 미국과의 협상, 그간 멀어진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
- 중국 증시는 2018년 무역 전쟁으로 관세로 인한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으나 단기 충격 불가피.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고 내수 부양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주에 주목할 필요.

상해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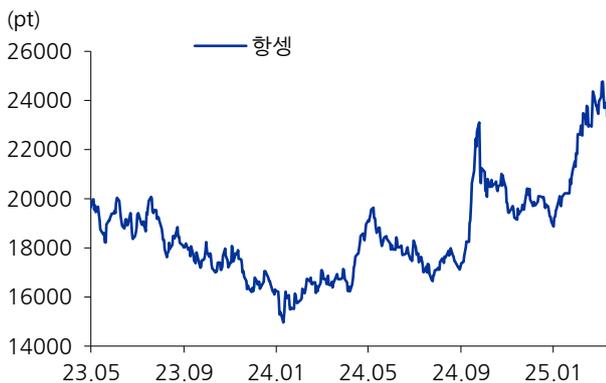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심천성분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항생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항생 Tech 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상호 관세에 대한 중국 영향

4/2 발표된 미국의 상호 관세는 시장 예상을 뛰어 넘었다. 중국을 비롯해 EU, 인도, 베트남,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에 20% 이상의 관세를 결정했고, 그 중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관세는 각각 34%, 46%에 달했다.

중국의 경우 앞서 20%의 관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관세가 발효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54%에 육박하게 된다. 34%의 추가 관세는 4/9 일 발효될 예정이다.

실제 관세율에 따른다면 중국은 대미 수입 관세율이 16%, 대미 수출 관세율이 30.7%로 대미 초과 관세율은 -14.7%이다. 이에 따르면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34%의 추가 관세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에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대폭 상향되었다. 2018 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에 대한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멕시코, 베트남 등 제 3 국을 통해 우회 수출을 진행했다. 우회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대미 무역 흑자가 크게 늘어난 바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경공업, 전자 산업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도 3 일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의 20%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전면적인 대미 관세 인상보다는 일부 품목에 제한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우회 수출국인 동남아까지 관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면전으로 나서기 보다는 제한적인 관세 인상이나 미국과의 협상, 바이든 행정부 시기 멀어진 미국의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한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 강도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약 60%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중국 GDP 의 -2.3%p 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4 월 말 열리는 정치국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증시는 2018 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로 인한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단기 충격은 불가피 하다. 중국 증시에서는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내수 부양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주의 유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 상호 관세

국가	대미 관세	상호관세
중국	67%	34%
EU	39%	20%
베트남	90%	46%
일본	46%	24%
대만	64%	32%
한국	50%	25%
인도	52%	26%
태국	72%	36%
스위스	61%	31%
말레이시아	47%	24%
캄보디아	97%	49%
남아프리카	60%	30%
방글라데시	74%	37%
브라질	10%	10%
영국	10%	10%
싱가포르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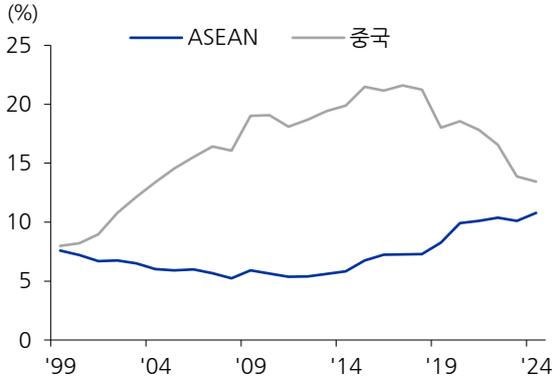
자료: 백악관, 유진투자증권

도표 1. 국가별 대미 수입, 수출 관세

국가	대미 수입 관세	대미 수출 관세	대미 초과 관세
남아프리카	5.8%	0.3%	5.5%
브라질	6.7%	1.3%	5.4%
태국	6.2%	1.6%	4.6%
한국	3.9%	0.2%	3.7%
인도	5.5%	2.4%	3.1%
일본	3.9%	1.5%	2.4%
아일랜드	2.0%	0.2%	1.8%
말레이시아	1.8%	0.6%	1.2%
캐나다	1.1%	0.1%	1.0%
스리랑카	7.9%	7.0%	0.9%
대만	1.7%	0.9%	0.8%
독일	1.8%	1.4%	0.4%
스위스	0.9%	0.6%	0.3%
프랑스	1.3%	1.2%	0.1%
싱가포르	0.0%	0.1%	-0.1%
멕시코	0.0%	0.3%	-0.3%
영국	0.7%	1.0%	-0.3%
인도네시아	4.2%	4.9%	-0.7%
베트남	2.9%	3.9%	-1.1%
중국	16.0%	30.7%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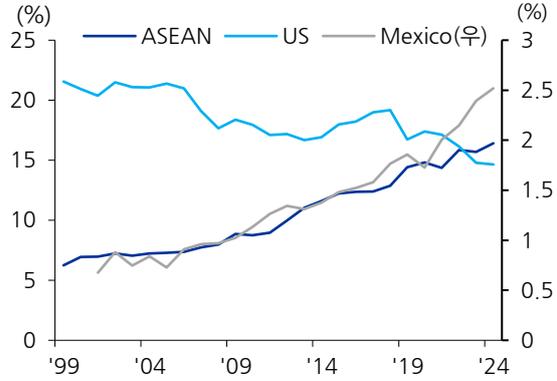
자료: WITS, USTR, WTO,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미국의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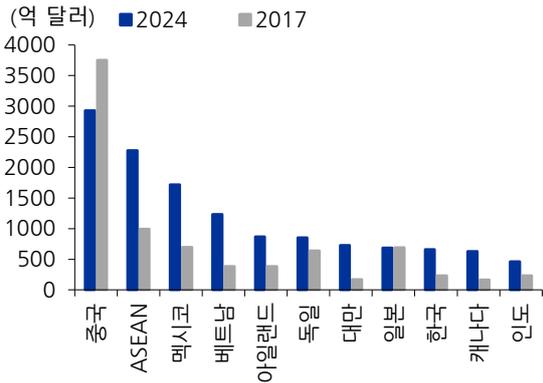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중국의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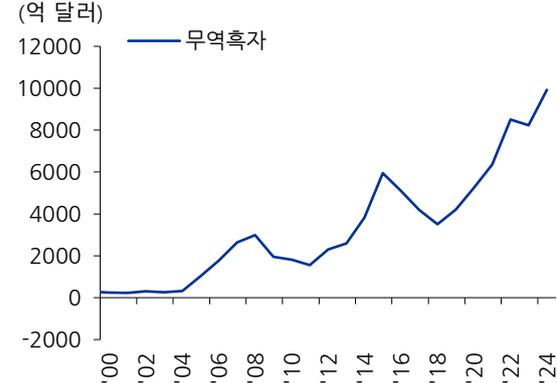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대미 무역흑자 2017 v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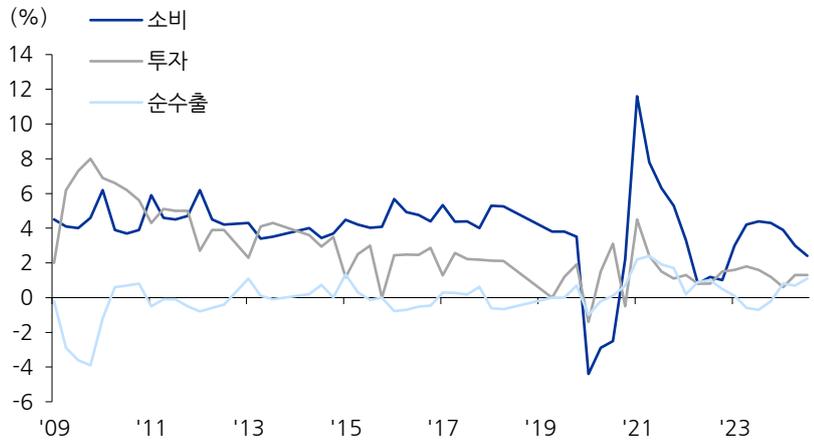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5. '24년 중국 무역 흑자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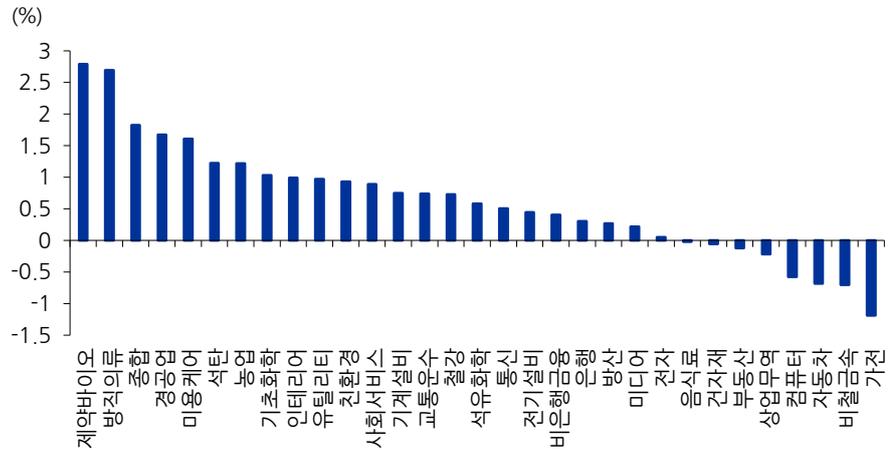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수출 기여도가 높아진 중국 경제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 중국 A주 업종별 주간 수익률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후강통 종목 중 중국 기관 순매수 Top10 (억 위안, %)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순매수액	등락률
600705.SH	AMC Industry-Finance	비은행금융	12.65	0.29
600276.SH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제약바이오	5.13	3.35
688256.SH	Cambricon Technologies	전자	4.89	1.02
600095.SH	XIANGCAI	비은행금융	4.00	8.71
603063.SH	Shenzhen Hopewind Electric	전기설비	3.06	8.14
600418.SH	Anhui Jianghuai Automobile	자동차	2.63	-1.31
603986.SH	GigaDevice Semiconductor Inc.	전자	2.00	0.61
688041.SH	Hygon Information Technology	전자	1.73	0.38
601088.SH	China Shenhua Energy	석탄	1.68	0.78
600571.SH	SUNYARD TECHNOLOGY	컴퓨터	1.61	14.43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선강통 종목 중 중국 기관 순매수 Top10 (억 위안, %)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순매수액	등락률
300274.SZ	Sungrow Power Supply	전기설비	3.74	4.41
000559.SZ	WANXIANG QIANCHAO	자동차	3.38	6.28
002422.SZ	Sichuan Kelun Pharmaceutical	제약바이오	3.32	14.80
000063.SZ	ZTE Corporation	통신	2.77	2.40
000837.SZ	Qinchuan Machine Tool & Tool	기계설비	2.29	3.57
000503.SZ	China Reform Health	컴퓨터	2.23	10.05
002249.SZ	BROAD-OCEAN MOTOR	전기설비	1.99	5.47
000524.SZ	Guangzhou Lingnan	사회서비스	1.84	16.11
002104.SZ	HengBao	통신	1.78	12.91
300353.SZ	Kyland Technology	통신	1.69	7.63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